

민주 당대표 선거, 이재명 vs 非이재명 구도로 가닥

비명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 비(非) 이재명 구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재명 의원이 최근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 간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주자들이 출마선언을 하지 않아 본격 논의 단계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12일 기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전당대회 재선에 걸려있는 '허대명(허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프레임에 깨기 위해서 전당대회 자체의 흥행과 관심을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하나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컷오프 전이라도 단일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상은 누구냐는 질문에 "단일화는 당연히 컷오프 전이든 후든 당연히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는 역동적인 전당대회가 만들어지고 '허대명'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 실망과 분노, 소리 없는 아우성에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았다.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면 97세대와

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97세대 주자들의 단일화가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냥 단일화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적어도 어떤 비전과 가치가 맞느냐에 대한 단일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당 대표 후보 컷오프를 한 다음에 단일화가 있는 것이다. 컷오프 전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런 부분에서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기는 29일 이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단일화에 부정적인 주자도 있다. 전날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비명(97세대 출마자, 양강 양박)이 각각 성장한 배경이라든지 정치 입문 후의 행보가 다른데 무리하게 그룹으로 엮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의원 독주 상황에서 97세대를 비롯한 다수 후보의 등장은 표를 분산시켜 이 의원의 당선은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병원, 강훈식 의원의 경우 친문계 등을 중심으로 조직력은 갖춰졌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컷오프 기준의 70%를 차지하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컷오프 전까지의 단일화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당 대표 선거 후보등록은 오는 17~18일이다. 이어 이달 29일 컷오프를 통해 본 투표 진출자를 3명까지 추려낸다. /뉴시스

출마 압박 이재명 1강 전망 속 일각에서 필요성 제기

박용진 "가능성 열어둬"… 강병원·강훈식 "컷오프 후 논의"

박주민은 반대... "각 후보 성장 배경, 정치 입문 후 행보 달라"

김민석 의원 등만 남는데 97세대 뿐 아니라 김민석 의원과의 단일화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상을 97세대(90년대 후반, 70년대생)으로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김민석 의원 뿐 아니라 이후 어떤 분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허대명이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체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컷 오프 이후 단일화론도 제기된

된다'고 전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본인의 가치 비전이나 당 혁신 방안, 리더십 등을 어떻게 세울지, 우리 당의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등 여러 방안을 다 제시함으로써 컷오프는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컷오프 통과 이후 우리 당 통합이나 당을 승리 정당으로 만드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제헌절 이전 원구성 합의 공감대”

여야, 첫 의장 주제 회동... 사개특위 등 전제조건 일괄타결키로

여야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합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인 부분으로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 합의가 이뤄져 국민이 기대하는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합의안이 무산되고 이런 불신들이 회복돼 그동안의 합의와 약속 이행되는 그런 국회 만들어야 나가 말했다"며 "관련해서 지금 이번주까지 수석 간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이 진전 되도록 그동안 이력이 있던 부분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대해서도 국회 개혁 조치, 4월 합의안에 대한 얘기도 원내대표들끼리 의장이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서 빠르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사개특위 정수 조정 관련해서도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수 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 이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외에 사개특위 참여라든지 여러 다른 전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원내수석끼리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

다"며 "전체적으로 좀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당대표 시절 원칙·상식으로 당 재건”

윤영찬 의원, 민주 최고위원 '출사부'

당 쇠신 방향으로 '정의·민주·유능' 제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경기 성남중원)은 12일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 그 길에 내가 앞장서겠다"면서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저는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님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쇠신 방향으로 △정의로운 민주당 △민주적인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롭게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부적으로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와 우리당에 스며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고 저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할 말을 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에 방점을 찍었다.

나아가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리며 조롱하는 이는 민주당원이 아니다"라며 "그런 망동은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 행위이고 몰상식이다. 부탁한다.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당원이라면, 이제는 조건 없이 서로 '환대' 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친이재명(친명) 성향 강성 지지층이 친문 비이재명계(비명) 의원들에게 가하는 문자폭탄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른바 '개딸' 지지층의 팩스·문자폭탄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민주성을 잃었을 때, 국민이 우리를 떠났고 반드시 이

겨야 할 선거에 연이어 패배했다"며 "그렇기에 당내 소통은 모든 방향으로 막힘이 없어야 하고, 의사 결정 과정 또한 한 점의 흠 없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당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허대명(허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에 고리로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재편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윤 의원은 "우리의 민주당이, 우리의 대통령님들처럼 정의로우야 한다고 믿는다. 갈라진 민주당원들의 마음이 다시 따뜻하게 단합되고,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다시, 당원의 자부심이 되는 민주당.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 국민 앞에 뚜렷한 민주당. 그 회복과 도약의 길에 저 윤영찬을 세워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한다. 그에 대해 윗가위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선택은 국민과 당원의 몫에게 당원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할말은 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 출마를 놓고 사전에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사전 논의는 바 없다"면서도 "다만 내가 결심하고 나서 전화를 통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대는 이재명계냐, 이낙연계냐, 정세균계냐 등 당내 계파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을 우리 세분대통령이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그 정당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그래서 이번 싸움을 지지자들도 계파간 갈등이나 싸움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뉴시스

‘女 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고성·육설 시위를 해온 한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유튜버 채널 '벨라도'를 운영하는 안정권씨의 친누나 안모씨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

는 것은 맞고, 안씨가 유튜버로 활동했던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것도 맞다"며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안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편집 등의 일을 했고, 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